

# 원아 1명당 권리금 1000만원 불법매매

## 어린이집 운영권 음성거래 사실로... 광주경찰, 6곳 적발

영리목적의 거래가 금지된 광주지역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대부분이 불법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방경찰청이 10곳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무작위로 선정해 수사한 결과 10곳 모두 불법매매가 의심됐으며 경찰은 일단 6곳의 어린이집 원장을 배임 수·증제 및 방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 어린이집 대표는 어린이 1명당 1000여만 원의 권리금을 책정해 최고 7억원까지 주고 받는 등 운영권을 불법 매매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인 어린이집은

비영리법인 시설로 매매할 수 없지만 운영권이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대표 임기가 3년인데, 그 기간 동안 어린이 1명이 10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해 거래기준이 된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에 불법매매 사실이 적발된 어린이집은 광산구가 3곳으로 가장 많고 북구가 2곳, 남구가 1곳 등이었다.

특히 남구 소재 한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이 아파트 건설부지로 편입돼 땅값이 크게 오르자 이를 팔기 위해 담당 공무원을 압박해 처분허가를 받

아 불법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 어린이집 대지와 건물은 사회복지시설의 기본재산에 속하며 이를 처분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담당구청장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등 과정이 까다롭자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수차례 약성민원을 제기해 스트레스에 시달린 공무원이 사표를 냈고 바뀐 담당자가 허가를 내준 것이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또 거래가 불가능한 법인 어린이집 매매계약서를 바탕으로 대금을 전문적으로 대출해주는 금융기관이 있고 경찰은 불법으로 운영권을

넘겨받은 이들이 6~7억 원에 달하는 매매대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어 매달 수백만 원의 할부금을 내며 교사 인건비와 정부 보조금을 횡령한 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광주지역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107곳 모두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며 "어린이집 운영자 중 구의원이나 구의원 가족 및 친족 등이 상당수라는 이야기도 있어 비리 및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도 수사중이다"고 말했다.

### 농수축산물 원산지 오늘부터 특별단속 광주시 설 앞두고

광주시는 설을 맞아 9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자치구와 국립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호남검역검사소, 명예감시원 등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매장, 전통시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원산지 자체를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품을 혼합해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미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위반자는 고발 또는 최소 5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41분 / 해질 17시 37분 / 달돋이 17시 44분 / 달질 07시 18분

대체로 맑음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구분	구분	기온
광주	구름조금	-5/5°C
목포	구름조금	-2/5°C
여수	맑음	-1/7°C
나주	구름조금	-7/6°C
완도	구름조금	-2/6°C
구례	구름조금	-7/6°C
강진	구름조금	-4/6°C
해남	구름조금	-5/6°C
장흥	구름조금	-5/6°C
순천	구름조금	-2/7°C
영광	구름조금	-6/4°C
진도	구름조금	-2/6°C
전주	구름조금	-6/4°C
군산	구름조금	-5/3°C
남원	구름조금	-8/4°C
홍산도	구름맑음	3/5°C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체감온도,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m, 0.5~1.0m, 관심, 보통,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m, 0.5~1.5m, 관심, 보통,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m, 목포 01:41, 07:09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m, 여수 09:21, 02:48

◇주간날씨: 기상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0(화)	11(수)	12(목)	13(금)	14(토)	15(일)
날씨	☀	☀	☀	☀	☀	☀
최저/최고	-3/5	-5/2	-6/2	-3/5	-4/5	-3/6

### '사건 당사자간 처벌 수위 낮추고 화해 유도' 광주지검 형사조정 2배로 늘었다

광주지검이 사소한 형사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화해를 이끌어내기 위해 형사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나섰다.

민간조정위원들이 피의자와 피해자의 사정을 참작, 조정안을 내놓고 조정이 성립되면 피의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고 민사 합의금까지 결정해 주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소지를 줄여준다는 것이다.

8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형사조정 의뢰건수는 지난해 3/4분기(1~9월)까지 270건에 불과했으나 검사들에게 적극적인 조정 화해를 권장하고 민간조정위원들을 상시근무하도록 하면서 4/4분기(10~12월)에만 391건에 달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형사조정 성립비

율이 3/4분기까지 38.4%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0월 64.1%, 11월 66.6%, 12월 65.6% 등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애초 검찰은 폭행이나 간단한 상해 사건의 경우 합의되지 않으면 벌금형을 구형하고 약식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해 민사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번거로운 절차나 비용 없이 필요한 손해배상과 당사자 간의 화해까지 이끌어내면서 호평을 받고 있다.

한편 광주지검은 퇴직 공직자, 대학교수 등 30명을 새롭게 조정위원으로 위촉하고 사례집을 발간해 조정 경험을 공유할 방침이다.

이 같은 노력으로 형사조정 성립비

### 대학 '학점장사' 못한다 시간제등록생 입학정원 10%로 제한

일부 부실 대학들의 '학점 장사' 수단으로 악용돼온 시간제 등록생 규모가 총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모든 대학의 시간제 등록인원을 총 입학정원의 10%까지로 제한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올해 1학기부터 적용된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 시간제 등록인원은 수도권 대학에 대해서만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제한됐다.

비수도권 대학에 대해서는 정규 학생과 함께 수업을 받는 통합반 등록인원 제한이 없어 일부 지방대학이 이를 악용해 무분별하게 학생을 모집한 뒤 학점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저질 수업을 하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

지난해 학교폐쇄를 통보받은 명신대와 성화대도 시간제 등록생을 무더기로 뽑아 학점 장사를 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시간제 등록생이 많은 대학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실태점검에 나선다.

점검 결과 부실운영이 적발된 대학에는 입학정원 제한과 시간제 등록생 금지 등 제재를 내릴 계획이다.

2011년 상반기 기준 시간제 등록생 운영 대학은 86개교이며 등록인원 상 위 10개 대학(3만7000여명)이 전체 인원의 92%(3만4000여명)를 모집했다.

### 주한 대사관 화염병 투척 30대 중국인 불잡아 조사중

자신의 외할머니가 일제 강점기 일부분 위안부로 강제동원된 한국인이란 주장하는 중국인이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졌다.

이 중국인은 자신이 지난해 12월 말 일본 야스쿠니(靖國)신사에 불을 질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중로경찰은 8일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화염병 사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인 류모(38)씨를 불잡아 조사하고 있다. 류씨는 이날 오전 8시18분경 중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에 화염병 4개를 던져 대사관 담 일부가 그을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류씨는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1000번째 수요집회를 기념해 지난해 12월 세워진 '위안부 평화비' 인근에서 소수범으로 만든 화염병 11개 가운데 4개에 불을 붙여 던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 노인 10명 중 7명 "성생활 한다"

35% "성매수 경험"

건강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 가운데 상당수가 성생활을 하고 있으며, 성병 감염이나 성기능 저하 등 고민 또한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65세 이상 남녀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성생활 실태 조사 결과 현재 '성생활을 한다'는 응답비율이 66.2%(331명)에 달했다고 8일 밝혔다.

노인 10명 가운데 7명 가량이 성생활을 하는 셈이다. 또 간접적으로(성매수 여부가 아닌 장소 질의) 성매수 여부를 물어본 결과 최소한 전체 응답자의 35.4%인 177명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80명이 성매매 시 큰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SINCE 1982

난청은 물론 이명까지 -젠 톤-

## 말 소리가 잘 안들린다구요?

국제보청기

www.kjhr.com

- 노인성 난청에 탁월한 보청기
- 자연스런 소리연출이 가능한 보청기
- 이명 완화에 효과적인 보청기

본점 062-227-9940 | 서울점 02-765-9940 | 순천점 061-752-9940  
 총장점 062-227-9970 | 목포점 061-262-9200 | 장흥점 080-222-9975

광주·전남 기능장1호

## 大山프리모남녀가발

21년 가발 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시술후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검색

2011년 신제품 50만원~

최상품을 최저가로 최고의 만족을 드립니다

귀하의 품위와 인격을 높여주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화상 두피함몰등 가발의 모든것 해결함  
 타사 제품도 신기술로 보완시술 가능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기든상가 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대산프리모가발

## 친환경 2012년 태양광 발전 주택보급 실시!

아직도, 전기를 끊내고 사용하십니까? 주택용 태양광발전 선착순 한정 접수

태양광이론(Sanyo Module)?  
 반도체 기술을 이용하여 태양빛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태양광발전(주택용)설치 후 효과  
 ◆ 전기요금 많이 나오는 가정집  
 ◆ 누진요금이 걱정인 곳  
 ◆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간다  
 ◆ 설치시 전기요금 효율 80% 절감  
 2KW 용량의 태양광 발전 설치시 월평균 약 240~300KW의 전력이 생산 가능하고 사용량이늘수록 전기요금을 월 최대 약 25만원을 절약시켜드립니다.

태양광시스템이 적용된 주택의 특징  
 태양광시스템으로 발전된 전력은 주택전기에 사용되고 남는 전력은 한전으로 역전송됩니다. 역전송시에 한전계량기를 거꾸로 돌림으로서 전기를 80~90% 절약시켜 줍니다. 비가오거나 흐린 날씨에도 태양광은 소수전력이 생산되지만 발전량이 사용량보다 적으면 자동으로 한전 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전기를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태양광 주택 사업 설치 사례  
 태양광 주택 신청안내  
 신청하신 주력이나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은 전화 주시면 태양광 전문가가 직접 전화후 방문상담하여 일주일 이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전기요금(사용량)에 비해	설치시 청구요금	절감 요금
8만원 (약 415kWh)일 때	약 1,800원	약 78,200원
10만원 (약 460kWh)일 때	약 5,600원	약 94,400원
12만원 (약 500kWh)일 때	약 8,900원	약 111,100원
15만원 (약 540kWh)일 때	약 16,500원	약 133,500원
20만원 (약 610kWh)일 때	약 30,600원	약 169,400원
25만원 (약 680kWh)일 때	약 48,000원	약 202,000원
30만원 (약 740kWh)일 때	약 72,000원	약 228,000원

\*기상 여건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 설치금액 : 680~880만원 [설치여부포함] (설치 여건 등에 따라 차등)

신재생 태양광 주택 보급 센터 (주)동성에너지 ☎062-512-1180 / H.P 011-659-7001